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송지연

#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지도교수 이 은 섭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송 지 연

송지연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유 필 재    (인)

심사위원    박 정 희    (인)

심사위원    이 은 섭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2년 8월

##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송지연

본고는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확인하는 데 논의의 목적이 있다. 현재, 단일화된 연결어미 ‘-고도’와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의 단순 통합형 ‘-고도’가 동일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양보’의 의미 실현과 통사적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양보 연결어미 ‘-어도’에 비해 양보의 ‘-고도’에 대한 관련 논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고도’의 의미와 문법적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확인된 ‘-고도’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결어미 ‘-고도’는 양보를 표상한다. 선행절 사태에 따른 기대를 부정하는 양보의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따라 ‘-고도’ 양보 구문을 세분하여 논의하였다. 기대 부정이 후행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양보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는 달리 기대 부정이 문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표현되는 양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선, 후행절에 반대 어휘를 사용하여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나타내는 양보의 경우도 살펴보았다.

선행절 사태와 이에 따른 기대를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양보가 충분조건을 부정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선행절 사태와 기대가 필요충분조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사실성을 표상하는 ‘-고도’가 극단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전제될 때에는 비사실적인 사태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은 선, 후행절을 대등적으로 접속하고 화자의 기대 부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 선, 후행절은 ‘-고’를 사이에 두고 단순 나열된 것에 추가적으로 ‘도’의 강조·강화 기능으로 인해 각각의 서술어가 강조된 의미를 형성한다. 선, 후행절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다른 특성의 서술어가 나열되거나 동일한 서술어가 나열되어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양보의 ‘-고도’는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선어말어미 ‘-시-’는 주어의 성격에 따라 ‘-고도’와의 통합에 제약이 나타난다. 선어말어미 ‘-었-’과 ‘-겠-’도 ‘-고도’와의 통합에 제약을 보인다.

양보의 ‘-고도’ 구문은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보의 ‘-고도’ 구문은 후행

절에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식이 오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또한 양보 연결어미 '-고도' 구문은 종속 접속 구성으로 선,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은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와 '-었-'과 통합되며 '-겠-'과의 결합에서는 제약을 보인다. 선, 후행절의 주어는 일치해야 하며 연결어미 '-고도'와 동일하게 후행절 문장 유형으로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식이 오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고'와 '도' 통합 구문은 연결어미 '-고도'와는 달리 선, 후행절의 교체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고도', '-고', '도', 양보, 나열, 기대부정, 필요조건, 충분조건, 사실성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배경 .....	1
1.2. 연구 대상 .....	1
1.3. 논의 전개 .....	4
2. 기존 논의 검토 .....	5
2.1. 선행 연구 .....	5
2.2. 사전과 문법 교재 검토 .....	7
3.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적 특징 .....	11
3.1. 연결어미 ‘-고도’ 구문 .....	11
3.1.1. 양보 구문에서 선, 후행절의 의미 관계 .....	11
3.1.2. ‘-고도’ 양보 구문과 조건문과의 관계 .....	16
3.1.3. ‘-고도’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 여부 .....	22
3.2.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 .....	26
4. ‘-고도’ 접속 구성의 통사적 특징 .....	30
4.1. 연결어미 ‘-고도’ 구문 .....	30
4.1.1. 선행절 서술어의 제약 양상 .....	30
4.1.2. 선행절 서술어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통합 양상 .....	31
4.1.3. 선, 후행절의 동일 주어 제약 양상 .....	34
4.1.4. 후행절의 문장 유형 양상 .....	36
4.1.5. 선, 후행절 교체 양상 .....	37
4.2.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 .....	38
4.2.1. 선행절 서술어의 제약 양상 .....	38
4.2.2. 선행절 서술어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통합 양상 .....	39
4.2.3. 선, 후행절의 동일 주어 제약 양상 .....	41
4.2.4. 후행절의 문장 유형 양상 .....	42
4.2.5. 선, 후행절 교체 양상 .....	44

5. 결론 .....	45
<참고문헌> .....	47
<Abstract> .....	49



## 표목차

표 1 ‘-고도’의 사전 기술 .....	8
표 2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의 ‘-고도’ .....	9

## 그림목차

그림 1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 분류 .....	2
그림 2 조건 A, B의 관계와 여집합의 표시 .....	18
그림 3 필요조건의 성립 관계 및 필요충분조건 관계 .....	20
그림 4 ‘-어도’와 ‘-고도’의 사실성 표현 관계 .....	25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연결어미 ‘-고도’가 가지는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선, 후행절이 대등적 나열 관계를 이루는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으로 지칭)에서는 ‘-고도’를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술하고 다음의 용례를 들었다.

(1) 가. 오시고도 연락을 안 하셨다니 섭섭합니다.

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sup>1)</sup>

그러나 (1가)와 (1나)의 ‘-고도’는 동일한 어미로 처리할 수 없다. (1가)는 ‘오-’라는 선행절 사태에 대하여 ‘연락을 안 하-’라는 후행절 사태가 기대 부정의 양상으로 실현된다. 반면에 (1나)는 ‘이야기’의 내용을 ‘슬프-’와 ‘아름답-’이라는 특성을 나열하여 표현한 것으로 기대 부정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다. 즉, (1가)와 (1나)는 기대 부정이라는 양보의 의미 실현 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한편, 통사적으로 (1가)는 종속 접속 구성으로 선, 후행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1나)는 의미 변화 없이 선, 후행절의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도’를 탈락시키면 (1가)는 의미론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데 반해 (1나)는 성립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1가)와 (1나)가 의미론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고’와 ‘도’ 통합 구문으로 구분하여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어떠한 통사적 특징을 가지는지 논하고자 한다.

### 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결어미 ‘-고도’를 통해 구현된 양보 구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이다. 더불어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고도’ 접속 구성을 ‘-고도’ 구문과 ‘-고’와 ‘도’ 통합 구문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 관계를 살핀다. 이러한 구분은 양보 의미 실현 여부에 따른 것이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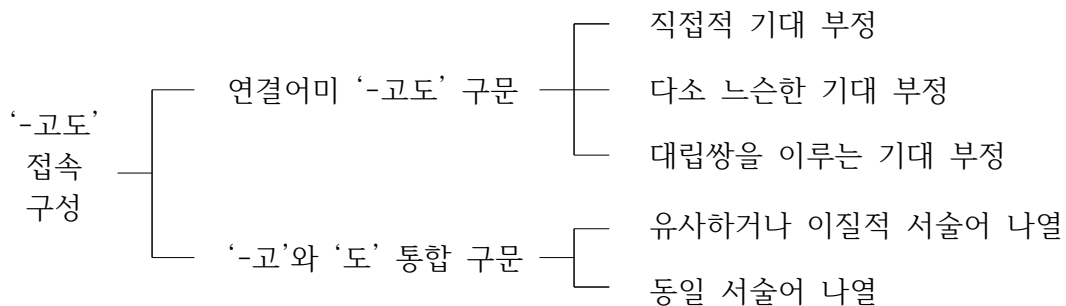
1) 김종록(2010: 171)과 장요한(2009: 194)은 양보의 의미로 처리하였다.

체적으로는 양보 구문을 선행절 사태로부터 도출되는 기대가 후행절에서 직접적으로 부정되는 전형적 양보와 다소 넓은 의미의 덜 직접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양보, 그리고 어휘의 대립쌍으로 기대 부정을 실현하는 극단적인 양보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 하겠다.

연결어미 ‘-고도’가 나타내는 양보의 의미는 선, 후행절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양보 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절 사태의 기대 부정이 후행절에 실현되는 양보 구 문과 기대가 드러나는 조건문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선, 후행절 간 에 형성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관계를 통하여 확인해 볼 것이다.

한편, ‘-고도’ 양보 구문은 일반적으로 선행절 사태가 사실성을 기반한다고 알려져 왔다. 예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나 조건문에서는 비사실적 사태도 선행절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에서는 선, 후행절의 서술어 성격에 따라 다 음의 두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선, 후행절의 서술어가 서로 유사하 거나 이질적인 특성을 표상하는 어휘 나열 구문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 서술어 나열 구문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 분류



위의 분류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 (2) 가. 밥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
- 나. 밥을 먹고도 또 빵을 먹는다.
- 다. 인생은 길고도 짧다.
- 라. 푸르고도 맑은 가을 하늘
- 마. 푸르고도 푸른 가을 하늘

(2가)는 ‘-고도’의 선행절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가 후행절에서 직접적으로 부정되는 양보 구문을 이룬다. (2나)는 ‘-고도’의 선행절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의 부정이 문면에 구현되지 않고 결과의 부정을 전제로 한 어떠한 사태가 후행절에 실현된다. 이때의 후행절 역시 선행절의 내용을 근거로 형성될 수 있는 기대가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2나)를 양보 구문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2다)는 대립쌍을 이루는 선, 후행절의 두 어휘가 극단적인 대립을 이룸으로써 기대 부정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고도’가 양보 구문을 이루는 (2가~다)와는 달리 (2라, 마)는 선, 후행절이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나열 관계가 실현된 것이다. ‘-고도’가 (2라)에서는 ‘푸르-’와 ‘맑-’이라는 다른 특성의 두 어휘를 대등적으로 나열하고, (2마)에서는 ‘푸르-’와 ‘푸르-’를 반복적으로 나열하였다. (2라, 마)는 보조사 ‘도’를 탈락시켜도 의미 변화 없이 문장이 성립하므로 단일화된 연결어미 ‘-고도’가 아닌 ‘-고’와 ‘도’ 통합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고도’ 접속 구성이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구분됨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고도 남다’ 구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고도 남다’ 구성을 이루는 용례들이다.

(3) 가. 못된 시어머니 대희 나가면 일등먹고도 남을꺼.<sup>2)</sup>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43)

나. 쇠고기 한 근 값이면 두부 몇 판을 사고도 남을 돈이라는 걸 뻔히 알면 서!!<sup>3)</sup>

(드라마, 그대, 웃어요 01)

(3가~나)는 ‘-고도’와 ‘남다’의 각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을 형성함으로써 ‘충분히 ~할 정도이다’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sup>4)</sup> 우리는 이와 같이 ‘-고도’가 그 자체의 기능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남다’와 같은 여타 성분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일종의 구성으로서 기능하며 의미의 변화가 생긴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와 구글(google)에서 ‘-고도’ 사용 예문을 추출하였으며 또한 선행 논문들의 용례들과 작례들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위에서 밝힌 연결어미 ‘-고도’의 양보 의미와 연결어미 ‘-고’와 보

2) 본고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은 따로 교정하지 않고 인용한 원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나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3) (3가, 나)는 각각 ‘1등 할 사람’, ‘사기에 충분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이은섭·진가리(2016: 62) 참조할 것.

조사 ‘도’ 통합 구문의 나열 관계 및 각각의 통사적 특징을 살핀다.

### 1.3. 논의 전개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고도’ 접속 구성에 대해 구명한다.

2장에서는 연구사를 중심으로 양보 연결어미 접속 구성에서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 여부, 조건문에서 선, 후행절의 필요·충분조건 관계, 선행절의 상례적 함축 여부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핀다. 그리고 ‘-고도’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 논의를 정리한다. 특히 ‘-고도’를 어미화된 연결어미로 보는 견해와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의 결합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어 교재나 사전에서의 ‘-고도’에 대한 기술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고도’ 접속 구성과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성의 구분이 모호함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3장에서는 양보 의미 실현 여부에 따라 ‘-고도’ 접속 구성을 두 부류로 나누어 고찰한다. 양보 의미의 ‘-고도’ 구문과 나열 관계 구문인 ‘-고’와 ‘도’ 통합 구문이 그것으로 각각의 개념과 의미 특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차원에서 선행절의 명제 내용을 전제로 하는 조건문과 이 명제 내용을 통해 기대되는 사태가 실현되지 않는, 즉 기대가 부정되는 양보 구문의 관계를 논의한다. 또한 양보 접속 구문에서 실현되는 부정의 상례적 함축을 논의한다. ‘-고도’ 양보 구문에서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과 비사실성 여부가 어떻게 관여되는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핀다. 더불어 나열 관계의 ‘-고’와 ‘도’ 통합 구문이 갖는 의미적 특징을 논한다.

4장에서는 양보 연결어미 ‘-고도’와 ‘-고’와 ‘도’ 통합 구문의 이질적인 문법 특징을 관찰하여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양보의 기능이 각 구문의 문법적 성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나열 관계가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찰한다.

5장은 결론으로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2. 기존 논의 검토

### 2.1. 선행 연구

‘-고도’ 구문이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양보 개념을 고찰하고 양보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개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우선 초기 논의를 살펴보면, 주시경(1910: 84-87)은 ‘뒤집힘’이라는 의미 기능으로 연결어미 ‘-(으)나, -되, -아도, -라도, -거늘, -고도’를 상정하였고, 최현배(1971: 290-330)에서는 ‘방임’이란 대범주를 상정하고 그 하위 범주로 ‘사실 방임형’과 ‘가정방임형’을 구분하였다.<sup>5)</sup> 허웅(1975: 563)은 불구(양보), 즉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제약법과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이음법을 ‘불구법’ 또는 ‘양보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으)나, -아도, -라도, -고도’를 이러한 견지에서 설명하였다.

윤평현(2005)과 이은경(2000)은 여러 연결어미들 중의 하위 항목으로 양보의 연결어미를 다루었다.<sup>6)</sup> 윤평현(2005)은 양보 관계 연결어미를, 선행절과 그 선행절에 의해서 예상되는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인 후행절을 이어 주는 연결어미라고 기술하고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 -르지언정, -르망정’ 등을 해당 연결어미로 들었다.<sup>7)</sup> 양보 관계 연결어미가 갖는 양보의 의미는 전제에 의해 생성됨을 지적하였다.

(4) 가.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한다.

나. 그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4가)는 조건문으로 일반적인 기대의 결과가 후행절에 실현된 것이고 (4나)는 양보 구문으로 기대의 부정이 후행절에 실현된 것이다. 본고는 양보 구문과 조건문의 관계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A이면 B’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의 충분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 양보의 본질이라는 Dancygier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순옥(2017: 20)은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관계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우리는 양보 구문의 선행절이

5) ‘사실 방임형’으로 ‘-지만, -거니와, -아도, -(으)나’를, ‘가정 방임형’으로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을 상정하였다.

6) 연결 어미의 유형은 남기심·고영근(1993)에서 나열, 동시, 계기, 상반, 조건이나 가정, 이유나 원인, 결과나 상태 지속, 바뀔, 더함, 의도, 목적, 상관없음, 반드시 그러함, 배경, 정도의 15개, 윤평현(2005)에서는 나열, 선택, 대립, 조건, 양보, 인과, 시간, 상황, 부가, 전환, 목적, 결과의 12개, 이은경(2010:223)에서는 나열, 대조, 선택, 배경, 선행, 원인, 조건, 양보, 결과의 9개로 분류하였다.

7) 윤평현(2005)에서는 ‘양보 관계 접속어미’로 표현하였으나 우리는 ‘양보 관계 연결어미’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후행절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은경(2000: 246-247)은 양보 구문이 선행절을 부정하는 의미를 상례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전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조건문의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은섭·진가리(2016: 56)에서는 ‘-고도’ 접속 구성이 비사실적 양보 상황에는 잘 쓰이지 못하고 사실적 양보에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극단적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고도’가 비사실적 양보를 표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순옥(2017: 33)은 ‘-고도’ 양보 구문이 지시하는 사태가 대개 사실로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용례들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때 ‘-고도’가 쓰인 양보 구문은 조건문의 주절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극단적 상황의 추가 용례를 살펴보고 또한 ‘-어도’ 구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결어미 ‘-고도’의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양보의 의미가 아닌 ‘-고도’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의 단순 결합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송남남(2014)은 이를 조사 결합형 ‘-고도’라고 하였고 병렬, 첨가의 연결어미 ‘-고’와 강조의 보조사 ‘도’의 결합형, 방법의 연결어미 ‘-고’와 ‘역시’를 의미하는 보조사 ‘도’로 설명하며 어미화된 ‘-고도’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구별하였다.<sup>8)</sup> 본고에서는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선, 후행절 서술어를 유사하거나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나열, 동일 서술어 나열로 구분하여 양보의 ‘-고도’와는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양보 연결어미를 의미적·통사적으로 논의한 장요한(2009), 서희정·홍윤기(2010), 김종록(2010) 등을 살펴보겠다.

장요한(2009)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양보 연결어미를 말뭉치 빈도 조사를 기반으로 ‘-아도, -더라도, -고도, -ㄴ들’ 순으로 선정하고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특이한 점은 첫째, ‘-고도’를 하나의 연결어미로 간주하고 양보의 의미로 설명한 것이다. 둘째, 양보 접속 구성의 선, 후행절 의미 관계에 따라서 양보 구문을 사실성, 비사실성, 반사실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고도’ 양보 구문은 사실적 사건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본고의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고도’ 접속 구성을 ‘-고도’ 구문과 ‘-고’와 ‘도’ 통합 구문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고도’ 구문이 예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나 조건문에서는 비사실적 사태도 선행절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서희정·홍윤기(2010)는 문법 용어로 쓰인 ‘양보’가 일상생활 용어로서의 의미인 ‘양보’와의 이질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가 나

8) ① 문장이 아름답고도 간결하다. (병렬+강조)

② 슬프고도 슬픈 사랑의 얘기를 해 주었다. (첨가+강조)

③ 아버지는 술을 돈을 내고도 먹고 외상으로도 먹는다. (방법+역시)

름의 방식으로 양보 연결어미 ‘-아도, -더라도, -르더라도, -ㄴ들’의 주된 의미를 ‘가정’으로 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윤평현(2005: 148)에서 양보 관계 연결어미가 사실 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가정의 의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과 일맥상 통하는 점이다.

김종록(2010: 172)은 ‘-고도’를 양보와 첨가의 의미로 구분하여 각각의 통사적 특징을 언급하였다. ‘-고도’가 첨가의 의미를 표상하는 경우일 때에만 선행절 어간과 후행절 어간이 동일하거나 동일 의미 유형의 동사가 온다고 보았다.<sup>9)</sup>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연결어미 ‘-고도’와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4장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또한 김종록(2010: 172)은 첨가의 ‘-고도’는 주어가 동일해야 하며 양보의 ‘-고도’는 동일 주어 제약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표준』에 첨가의 ‘-고도’와 양보의 ‘-고도’를 별도로 표제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연결어미 ‘-고도’와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 2.2. 사전과 문법 교재 검토

한국어 교육에서 중급 수준의 문법 교수 항목에 속하는 ‘-고도’는 한국어 학습 교재나 사전에서 다루는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거나 표제어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종의 사전과 4종의 문법 교재에서의 연결어미 ‘-고도’의 기술과 용례를 정리함으로써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전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법 정보와 의미, 예문을 정리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9) 김종록(2010: 172)이 사용한 ‘동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아우르는 표현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① 멀고도 멀다(동일)

② 지루하고도 따분하다(동일 의미 유형)



<표 1> '-고도'의 사전 기술

사전	문법 정보, 의미 기술과 용례
표준국어대사전	<p>-고도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나 '-으시-' 뒤에 붙어))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① 슬프<u>고도</u> 아름다운 이야기.                      ② 졸<u>고도</u> 졸지 않은 체하다.                      ③ 오시<u>고도</u> 연락을 안 하셨다니 섭섭합니다.</p>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p>-고도 「연결 어미」                      ((용언이나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① 슬프<u>고도</u> 아름다운 이야기.                      ② 동생은 몰래 내 빵을 먹<u>고도</u> 먹지 않은 체했다.</p>
연세 한국어사전	미등재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표준』과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로 지칭)의 '-고도'에 대한 의미 기술과 용례가 유사한 반면에 『연세 한국어사전』(이하 『연세』로 지칭)에서는 '-고도'를 표제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동일한 문법 항목에 대해 등재 여부가 다른 것은 '-고도'를 독립된 어미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과 『고려』에서는 '-고도'를 어미화된 연결어미로서 표제어로 제시하였으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용례로 들었다. 우리는 이 용례의 '-고도'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간주하였다. 양보의 의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 선, 후행절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과 '도'를 탈락시켜도 의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도' 접속 구성과는 구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표 2>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의 ‘-고도’<sup>10)</sup>

교재 및 단계	항목 기술과 용례
서울대 교재(『서울대』)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다루지 않음.
재미있는 한국어(『고려대』), 6권 10과	<p><b>-고도</b> ((형용사 뒤에 붙어, 어떤 상태나 느낌에 또 다른 상태나 느낌이 더해짐을 표현한다.))</p> <p>① 강렬하<u>고도</u> 오묘한 느낌이 전해지는 작품이군요. ② 슬프<u>고도</u>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요.</p>
연세 한국어(『연세대』) 3-2권, 7과	<p><b>-고도</b> ((동작 동사에 결합하여 행위나 결과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된다.))</p> <p>① 피자를 한 판이나 먹<u>고도</u> 배가 고프다고? ② 월급을 받<u>고도</u>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p>
경희 한국어(『경희대』), 문법 5권 3과	<p><b>-고도<sup>1</sup></b> ((동작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 후의 결과가 예상과는 상반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p> <p>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을 끼<u>고도</u> 잘 보이지 않는다. ② 연습을 많이 하면 눈을 감<u>고도</u>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해요.</p> <p><b>-고도<sup>2</sup></b> ((상태 동사에 붙어 두 가지 특성이 상반됨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다소 문학적인 느낌을 준다.))</p> <p>① 지나온 역사를 살펴볼 때 그 나라는 가깝<u>고도</u> 먼 나라이다. ② 길<u>고도</u> 짧은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물음 앞에서 머뭇거린다.</p>

10)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교재는 전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된 반면 경희대 교재는 문법·읽기·듣기·쓰기·말하기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서울대』에서는 ‘-고도’를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고려대』에서는 나열 관계만 제시하고 있으며 『연세대』에서는 양보의 의미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고도’의 전체적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한편 『경희대』에서는 양보 의미 ‘-고도<sup>1</sup>’와 상반된 특성을 표상하는 의미 ‘-고도<sup>2</sup>’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선행절 서술어 어간을 각각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희대』에서 제시한 바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도’의 의미를 분류하여 학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이기고도 지다’와 같은 용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두 가지 특성인 ‘이기다’와 ‘지다’는 상반된 의미를 표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선행절 서술어 어간이 동작 동사임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용례의 ‘-고도’를 선, 후행절에 어휘의 대립쌍으로 기대 부정을 실현하는 극단적인 양보 구문으로 본다. 또한 선, 후행절을 교체할 시, 의미가 달라지며 ‘도’를 탈락시켜면 의미 변화가 생기므로 양보 구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3종의 사전과 4종의 문법 교재에서 연결어미 ‘-고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직 ‘-고도’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음으로 그 연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논의를 하고자 한다.

### 3.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적 특징

본 장에서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구분하여 의미적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이 두 구문은 언뜻 보면 동일한 형식이지만 사실은 다른 구문으로 구별되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결어미 '-고도'가 표상하는 양보는 선행절의 사태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후행절에 부정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개념적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의 통합 구문은 '-고' 연결어미 구문이며 경우에 따라 후행 통합한 보조사 '도'의 기능이 추가되어 양보와는 무관한 의미를 표상한다. 우선 '-고도' 구문이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양보 구문을 논의한 후, 절을 달리하여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을 다루도록 한다.

#### 3.1. 연결어미 '-고도' 구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도' 양보 구문은 선, 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하거나 인과적인 양상을 띠지 않는다. 이 구문에서는 후행절 사태가 선행절 사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결과와 상반되거나 불일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행절로 인해 도출되는 청자의 기대가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양상, 즉 전형적인 양보의 양상이 발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 밖의 사태 등 이질적인 성격의 사태가 후행절에 나타나는 경우까지를 아우른다.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기대 부정'이라고 통칭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양보의 성격에 따라서 '-고도' 구문을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그 의미적 성격을 살피려고 한다. 즉, 연결어미 '-고도' 구문을 선행절 사태로부터 도출되는 기대가 후행절에서 직접적으로 부정되는 양보와 기대 부정의 양상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의 양보,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로 표상되는 양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우선 양보 구문에서 선,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살피고, '-고도' 양보 구문과 조건문과의 관계, '-고도'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 3.1.1. 양보 구문에서 선, 후행절의 의미 관계

선행절 사태로 인한 기대가 부정되는 양보 구문에서 기대 부정의 양상이 후행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양보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 (5) 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 (A이면 B)

나.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A어도 not B)

다. 밥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 (A고도 not B)

(5가)에서와 같이 ‘밥을 먹-’는 사태가 전제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배가 고프지 않-’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5나, 다)는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부정된 양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양보 구문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 경우에는 (5가)의 ‘A이면 B’와 같이 형식화한 조건문을 ‘A어도/고도 not B’의 형식으로 직접 변환하여도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형식이 전형적인 양보 구문이다.

한편, 전제되는 사태에 대한 기대 부정이 양보 구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5)에서와 같은 ‘-으면’ 접속 구성과 ‘-고도’ 접속 구성 간의 상호 변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대 부정이 직접 표현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먼저 (6, 7)의 예문을 보자.

(6) 가. 밥을 많이 먹었다. 배가 부르다/졸리다/만족스럽다/...

나.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졸리다/만족스럽다/...

(7) 밥을 먹고도 또 빵을 먹는다.

(6가)는 과거 사태 ‘밥을 먹-’이 전제될 때 뒤따를 수 있는 후행 사태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를 ‘-으니’를 통해 접속한 구문인 (6나)는 ‘밥을 먹-’이라는 과거 사태가 원인이 되어 뒤에 나열한 여러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6나)를 통해 해당 구문의 선, 후행절 사태가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7)은 선행절의 사태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와 동떨어진 사태가 후행절에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7)은 후행절 사태의 내용 면에서도 (5나, 다)와 차이를 보인다. 즉, (5나, 다)는 선행절 내용에 따라 기대되는 사태가 후행절에서 직접적으로 부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7)에서는 선, 후행절 사태가 인과 관계의 차원에서 직접 맞닿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5나, 다)는 밥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즉 (6가)의 후행절 항목들 중의 하나인 ‘배가 부르다’가 부정됨으로써 성립된 전형적인 양보 구문이다.<sup>11)</sup> 그러나 (7)은 밥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황들 중 그 기대치가 현저히 낮은 정황이 부정된 것이다.<sup>12)</sup> 다만 (7)과 같은 내용의 후행절은 마치 ‘밥을 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

11) 보다 엄밀하게는, 후행절이 ‘배가 고프다’가 아닌 ‘배가 안 부르다’로 상정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2) 여기에 기대되는 항목을 굳이 상정해 보자면, ‘빵을 안 먹는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6가)의 후행절 항목과는 달리 선행절과의 인과적 연관성이 매우 부족하다.

프다' 정도와 같은 양보 구문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또 빵을 먹는다'는 '배가 안 부르다'와 같이 선행절로 인한 기대가 부정되었을 경우이나 실현될 수 있는 사태 중 하나인 것이다.<sup>13)</sup> 그러므로 (5다)는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가 밀접하게 결부될 수 있는 인과 관계 차원에서의 결과가 부정된 것이라 한다면, (7)은 그러한 기대 부정으로 인한 내용이 직접 문면에 드러나지 않고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5다)와는 달리 (7)은 후행절 사태가 선행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의 표상이다. 이때의 선, 후행절의 관련성은 보다 멀어졌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7)의 용례 역시 인과 관계의 차원에서 느슨하기는 하나 양보 구문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5다)와 같은 양보는 후행절이 선행절 사태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사태의 부정 관계를 직접 드러낸다면, (7)과 같은 양보는 그렇게 부정되는 기대 내용이 후행절에 직접 드러나지 않고 내면화된 상황을 나타낸다. 이상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8) A: 밥을 먹-  
B: 배가 부르-  
A': 빵을 먹-
- (9) 가.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가'. A → B  
나. 밥을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다.  
나'. A → not B  
다. 밥을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다. 그래서) 빵을 먹는다.  
다'. A → (not B) → A'

(9가)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문, (9나)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보 구문이다. (9다)는 양보 구문으로서 후행절에 실현될 수 있는 부정된 기대의 내용(not B)과 또 그로 인해 후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태(A')를 나타낸 것으로 부정된 기대 내용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고 함축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7)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각각 '밥을 먹-'과 '빵을 먹-'으로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띤다. 그러한 점에서 (9다)에서 후행절을 A'로 부호화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형식화하면 (10)과 같다.

13) 관점을 조금 달리하자면 행위주 주어의 입장에서 섭취한 밥의 양이 평소와 달리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원래 식습관이 밥을 먹고 빵을 먹는다는 것을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우리의 주장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 (10) 가. <인과>  $A \rightarrow B$   
 나. <직접적인 기대 부정>  $A \rightarrow \text{not } B$   
 다. <선, 후행절의 인과 관계가 느슨한 기대 부정>  $A \rightarrow (\text{not } B) \rightarrow A'$

한편 이러한 두 부류의 양보는 ‘-고도’의 ‘도’ 생략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양보의 의미를 표상하는 연결어미 ‘-고도’와 대등적으로 선, 후행절을 접속하는 연결어미 ‘-고’가 다른 성격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11) 가. 밥을 많이 먹고도 배가 고프다.  
 나. #밥을 많이 먹고 배가 고프다.  
 (12) 가. 밥을 많이 먹고도 (또) 빵을 먹는다.  
 나. 밥을 많이 먹고 (또) 빵을 먹는다.

(11가)는 ‘도’를 생략할 경우 (11나)에서와 같이 그 의미가 원래의 양보 구문의 의미와 달라지며 문장의 의미 자체도 기이한 것이 된다. 그러나 (12가)는 ‘-도’를 생략하여도 의미론적 기이함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보의 의미는 거의 유지되지 못한다. 즉, 이러한 현상은 ‘-고도’의 어미화 과정이 완결되었음을 보이는 동시에, ‘-고도’의 어미화 완성 단계 면에서 직접적인 기대 부정 양보 구문과 느슨한 양보 구문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직접적인 반대 어휘 등을 사용함으로써 의미적으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양보로 표상된 경우를 살펴보자.

- (13) 가. 그것은 쉽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나. #그것은 쉽고 어려운 문제이다.  
 (14) 가. 그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나. ?그는 쉽고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13가)에서 ‘쉽다’와 ‘어렵다’는 의미적으로 직접적인 대립을 이루는 반대 관계에 있는 단어쌍이다.<sup>14)</sup> 이러한 반대 관계의 두 서술어는 의미적 대립성 때문에 (13나)와 같이 ‘도’를 생략한 상태에서 ‘-고’만을 사이에 두고 대등 접속 구성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13가)의 ‘-고도’는 연결 어미 ‘-고’와 보조사 ‘도’가 결합된 통합 구성이

14)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립(opposition)의 의미 관계를 ‘상관 관계, 모순 관계, 반대 관계, 결여 관계’로 구분하고 이들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상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은섭(2009: 8-10)을 참조할 것.

아니며 양보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 어미 ‘-고도’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14가)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다. 그런데 (14나)는 (13나)와 달리 정문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허용할 수 있는 듯하다. 이는 (13, 14)에서 대상이 되는 ‘문제’의 성격 때문이다. 즉, (13가, 나)의 ‘문제’는 단수를 지칭하는 대명사 ‘그것’의 존재로 보아 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문제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경우에 해당한다. (14가)의 ‘문제’도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하나의 문제에 대한 진술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 동시에 반의 관계의 단어쌍으로 묘사될 경우에 단순 나열의 ‘-고’로 접속되는 구문의 형성은 의미론적 파탄으로 귀결된다. 반면에 (14나)의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포괄하는 복수의 대상이라면 문장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14나)와 같이 연결어미 ‘-고’로 나열된 대등 구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은섭·진가리(2016: 60~61)는 어떤 대상의 특징을 진술할 경우에,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절을 연결어미 ‘-고’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고도’를 통한 접속은 대체로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도’가 보이는 ‘-고’와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고도’의 ‘도’를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로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고도’가 순전히 나열 관계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함으로써 특수한 표현 효과를 나타내는 모순어법에서 ‘-고도’는 나열의 의미 위에 무엇인가가 더 얹혀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설명은 (13가)와 (14가)의 ‘-고도’가 단순히 ‘-고’와 ‘도’의 단순 통합 구성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가)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에 변질이 생긴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는 선행절에서 ‘쉽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에서 이를 부정하는 ‘어려운’ 상태를 표상하고 있고, ‘어렵고도 쉬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또한 ‘쉬운’ 상태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3가)에 대한 위의 진술로부터 연결 어미 ‘-고도’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두 절을 연결하여 양보의 의미를 표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때의 연결 어미 ‘-고도’는 선, 후행절에 상반되는 상태나 느낌을 단순히 대등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의 전제를 부정하는 후속 사태가 이어서 나타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 후행절의 대립되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쉽고도 어렵다’는 ‘쉽다’와 ‘어렵다’라는 반대 관계 어휘가 서술어인 절들이 접속된



것이다. 선행절에서 ‘쉽다’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후행절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어렵다’가 뒤따라 나온 것이다. 그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반대 관계의 어휘를 사용한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 ‘문제’의 속성에서 배제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후행절에서 기대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양보에 비해 (13가)는 선행절로부터 가질 수 있는 기대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양립시킴으로써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기대에 대한 부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양보 형태를 살펴 보았고, 기대 부정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후행절 사태가 유발되는 즉, 기대 부정이 감춰진 전제가 되는 느슨한 형태의 양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비해 (13가)는 선행절과 대립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기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극단적인 양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15)와 (16)도 (13가)와 유사한 용례이다.

(15) 가. 이기고도 진 경기

나. 이기고도 즐겁지 않다.(← 이기면 즐겁다.)

(16) 살고도 죽은 목숨과 같다.

(15)에서 선행절 사태에 대해 뒤따를 수 있는 후행 사태들 중의 하나인 ‘즐겁다’를 사용하여 양보 구문을 표현하면 (15나)가 된다. 일반적인 기대를 부정하는 (15나)에 비해 (15가)는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즐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를 훨씬 더 뛰어 넘은 것으로서 ‘이기다’의 직접적인 반대 어휘를 사용하여 ‘진’ 것과 다른 없는 경기라고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미적으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양보로 표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6)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양립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연결어미 ‘고도’ 구문에서 양보의 의미를 직접적 기대 부정, 다소 느슨한 형태의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기대 부정, 대립쌍을 이루는 기대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3.1.2. ‘-고도’ 양보 구문과 조건문과의 관계

양보 구문은 선행절 사태를 전제로 기대되는 후행절의 사태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된다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양보 구문은 전제 부분, 그리고 그 전제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는 부분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 이러

한 양보 구문은 그 성격상 전제되는 상황이 구현하는 조건문과 의미 구조 면에서 모종의 관련성을 보인다. 전제된 선행절 사태로 인해 귀결되는 것이 후행절 사태라는 조건문의 전형적 양상을 고려한다면, 귀결된 후행절 사태의 내용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양보 구문이기 때문이다.

조건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진술 내용의 성립 측면에서 조건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논리 형식적 개념 하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순옥(2017: 20)은 양보 구문에서 이 조건들이 어떠한 양상을 취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15)</sup>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3.1.1.에서 든 예문 (5가~다)를 다시 가져온다.

- (5) 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 (A이면 B)
- 나.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A어도 not B)
- 다. 밥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 (A고도 not B)

(5가)는 밥을 먹을 경우, ‘배가 고프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진술한 조건문으로서 진술된 결과는 전제된 조건을 통해 응답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때는 조건 A의 충족 여부가 B로의 귀결에 관건이 되므로 A가 B의 충분조건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부정될 수 있고 그러한 기대 부정을 표현한 것이 양보 구문인 (5나, 다)이다. (5가)의 선행절(A)과 후행절 ‘배가 고프지 않-’의 부정(not B)인 ‘배가 고프-’가 ‘-어도’, ‘-고도’로 접속됨으로써 이루어진 구문이 (5나, 다)이다. 즉, A가 B의 충분조건임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양보 구문이 일반적인 조건문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도’와 ‘-고도’는 양보 어미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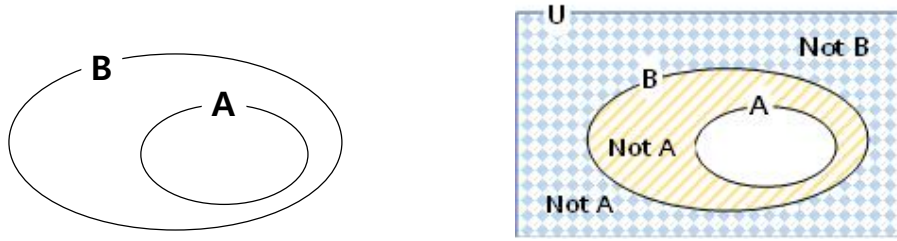
이해를 돕기 위해 ‘A이면 B’와 같이 전형적인 구조의 명제에서 A와 B가 구현하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의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sup>16)</sup>

---

15) ‘-어도’와 ‘-고도’ 구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겠다.

16) 충분조건 또는 필요조건의 관계를 논하는 용례에서는 ‘-어도’ 접속 구성과 ‘-고도’ 접속 구성에 근본적 차이가 없으므로 용례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림 2> 조건 A, B의 관계와 여집합의 표시



<그림 2>에서와 같이, 참인 명제 ‘A이면 B’의 경우에 A는 B의 충분조건이고 B는 A의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대우의 개념을 활용하여 동일한 명제를 여집합(not A 또는 not B)을 사용하여 표시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not B는 not A의 충분조건이고 not A는 not B의 필요조건이다. 즉, 명제 ‘A이면 B’가 참일 경우, 그 대우(對偶)인 ‘not B이면 not A’도 참인 것이다.

이순욱(2017: 20)은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것’과 동일하므로, 양보는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7)</sup> 이를 위해 ‘A이면 B’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not A이어야 not B’ 형식을 사용하여 필요조건이 되는 선행절의 not A가 부정되는 조건이 양보 구문임을 설명하였다.<sup>18)</sup> ‘-고도’가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자.

- (17) 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 (A이면 B)
- 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않는다. (not B이면 not A)
- 다. 밥을 먹지 않아야 배가 고프다. (not A이어야 not B)
- 라. 밥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 (A고도 not B)

조건문 (17가)의 대우를 표현한 것이 조건문 (17나)이고, ‘-어야’를 사용하여 필요조건을 선행절에 위치 시킨 표현이 (17다)이다. (17나)는 (17가)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

17) 참인 명제 ‘A이면 B’에서 A는 B의 충분조건, B는 A의 필요조건이 된다.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에서 6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충분조건이고 3의 배수는 6의 배수의 필요조건임을 상기해 보자.

18) 이순욱(2017: 20)에 따르면, ‘A이면 B’의 명제가 참일 경우, 그 대우(對偶) 관계인 ‘not B이면 not A’도 참이 된다. ‘A이면 B’는 ‘B이어야 A’의 형식과 논리적으로 동치이고 이때 B는 A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A이면 B’는 ‘not A이어야 not B’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 필요조건인 not A가 부정되는 표현이 양보임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림 2>를 참조할 것. ‘사람이면 동물이다.’와 같은 참인 명제를 사용하여 위의 진술을 대입해 보면, 대우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참). 그리고 ‘동물이어야 사람이다.’(참)에서 ‘동물임’은 ‘사람임’의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사람이면 동물이다.’는 ‘사람이 아니어야 동물이 아니다.’(참)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사람이 아닌’ 조건이 ‘동물이 아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은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의 상식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론적으로 기이한 문장이 된다. 이는 (17가)의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시간적 순서가 내재되어 있어서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를 변경하면 인과 관계에 훼손이 생기기 때문이다. ‘-으면’ 접속 구성이든 ‘-어도’, ‘-고도’ 접속 구성이든 선,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sup>19)</sup> ‘-어야’ 접속 구문인 (17다)의 선행절이 필요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 양보 구문 (17라)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보는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기호로 정리한 다음, 예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18) 가. A이면 B이다. <명제>

나. A는 B의 충분조건이다. → A면 B이기에 충분하다.

다. B는 A의 필요조건이다. → B이어야 A이다.

라. not A는 not B의 필요조건이다. → not A이어야 not B이다.

마. (<명제> ‘A이면 B이다.’에서) 양보는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 (<명제> ‘A이면 B이다.’에서) 양보는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 (‘not A이어야 not B이다.’에서) 양보는 not A가 not B의 필요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19) 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나.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다. (이은경(2000: 243))

다. 봄이 오지 않아도 꽃이 피기도 하는가?

(20) 가. 비가 오면 소풍을 안 간다.

나.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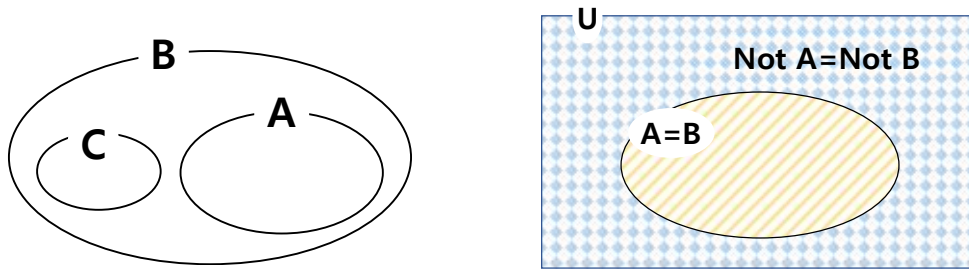
다. 비가 오지 않아도 소풍을 안 가기도 하는가?

B가 필요조건인지의 여부는 (19다)와 (20다)의 질문 ‘not A어도 B이기도 하는가?’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면 아래 <그림 3>에서 B를 만족시키는 A가 아닌 C의 존재가 있는 것이므로 B는 A의 필요조건이고, 대답이 ‘아니오’가 되면 C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A와 B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19) 이순욱(2017: 19)을 참조할 것.

(19다)에서 봄이 아닌 계절에도 꽃이 피므로 '예', (20다)는 비 대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조건(강풍, 지진, 유사 대형 사고 등)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예'의 대답이 적절하겠다. 따라서 전제와 그에 따른 기대 내용을 표현한 (19가)와 (20가)의 선, 후행절은 각각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나, (19), (20)과 달리 (21)은 선, 후행절이 좀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필요조건의 성립 관계 및 필요충분조건 관계



- (21) 가. 물을 충분히 주면 어린 사과나무가 잘 자란다. (A이면 B)  
 나. 물을 충분히 주어도 어린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A어도 not B)  
 다.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야 어린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not A어야 not B)  
 라.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어린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not A이면 not B)  
 마.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도 어린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도 하는가? (not A어도 B이기도 하는가?)

(21가)에서 A는 B의 충분조건이고 B는 A의 필요조건이다. 선, 후행절을 각각 부정한 (21라)도 성립하므로 not A가 not B의 충분조건이고 not B가 not A의 필요조건인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의 관계이다.<sup>20)</sup> 이는 (21마)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가 되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 (22) 가. 네 메일을 받으면 답장을 한다.  
 나. 네 메일을 받고도 답장도 못 해 줬다.

20) <그림 3>으로부터 'A이면 B'와 'not A이면 not B'가 성립하는 경우는 A와 B가 동일할 경우(필요충분조건)일 때임을 알 수 있다.

다. 네 메일을 받지 않아도 답장을 하기도 하는가?<sup>21)</sup>

(22가)는 선행절 사태를 전제로 하여, 예상되는 화자의 행태가 후행절에 드러나 있다. (22다)의 질문을 통해 <그림 3>의 'C'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 대답은 '아니오'가 형성되어 'A' 이외에 'B'를 만족하는 조건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2가) 조건문의 선, 후행절은 서로 필요충분조건임을 알 수 있다.

(21)과 (22) 예문들을 보면 화자의 진술이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에서는 '어린 사과나무'로, (22)에서는 '답장'으로 상황이 제한되어 여타의 가능성들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황을 제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 보면 즉 (21)의 '어린 사과나무'를 '나무', (22)의 '답장'을 '메일'로 바꾸어 보면 'not A어도 B이기도 하는가?' 질문의 대답이 '예'로 변경되어 'C'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관계로 전환이 된다.

이은경(2000: 244)은 양보 접속 구문이 선행절을 부정하는 명제를 상례적으로 함축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23) 가. 배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A어도 not B)

나.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 (A이면 B)

다. 배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not A이면 not B)

라. 배가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기도 하는가? (not A어도 B이기도 하는가?)

이은경(2000: 246)은 양보 접속 구문 (23가)는 화자의 예상과 반대되는 사태가 후행절에 나타나며 또한 선행절에 대한 부정 명제를 함축할 수 있는 (23다)와 같은 상례적 함축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건의 접속 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양보 구문은 (23나)의 후행절과 (23다)의 선행절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앞에서 이 두 진술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23나)의 선, 후행절이 서로 필요충분조건 관계일 때임을 살펴보았다.<sup>22)</sup> 이 경우 (23다)의 선, 후행절도 마찬가지로 서로 필요충분조건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23라)의 질문에 대해 '예'인 대답이 가능하므로 (23나)의 선행절은 충분조건이고 후행절은 필요조건이지만 선, 후행절이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23)</sup> 즉, (23다)는 의미적으로 수용 가능한 듯 보이

21) '답장'은 메일이나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한 답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메일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답장을 보낼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22다)에 대한 대답을 '아니오'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22) '이 두 진술'이라 함은 'A이면 B'와 'not A이면 not B'를 말한다.

23) '배가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기도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할 수 있다. '배가 아프지 않아도' 건강 검진의 목적으로, 문병으로, 신체의 다른 곳에 이상이 있어서 등의 경우에 병원을 방문한다

지만 다양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선행절이 전제될 때 항상 후행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23가)는 (23다)와 같은 상례적 함축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양보 구문이 상례함축을 내포한다는 것은 (23나)의 선, 후행절이 서로 필요충분조건 관계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 3.1.3. ‘-고도’ 선행절 명제의 사실성 여부

전형적인 양보 연결어미로 알려진 ‘-어도’ 접속 구성에서 선행절은 사실성을 표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sup>24)</sup>

(24) 가.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

나.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24가)의 진술이 문맥상 ‘(우리는 지금)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의 의미이면 사실적 사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우리 학교는 보통)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와 같은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이면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의 표현으로서 사실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24나)의 경우는 ‘(나는 보통)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를 의미한다면 선행절 사태의 사실성 여부가 불확실해지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서의 이러한 진술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나는 지금)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사실적 사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장요한(2009: 497)은 전형적인 양보 연결어미인 ‘-어도’의 접속 구성을 사실성, 비사실성, 반사실성으로 구별하여 논의하였다.

(25) 가. 영이가 붙잡아도 철수는 밖으로 나갔다.

나. 비가 와도 우리는 출향할 것이다.

다. 눈이 왔어도 산에 갔었을 것이다.

‘-어도’가 이끄는 양보 구문 (25가, 나, 다)는 선행절이 각각 ‘영이가 붙잡았다’는 사실적 사건, ‘비가 올지’ 불확실한 비사실적 사건, ‘눈이 오지 않았다’는 반사실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어도’ 양보 구문은 사실적, 비사실적, 반사실적 사건이 모두 표현 가능하다. 즉, ‘-어도’는 선행절 사태의 사실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

---

고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서정섭(1991: 33)에서 ‘-어도’가 가정 명제나 사실 명제에 구분 없이 다 쓰인다고 하였으며 이은경(2000: 246)에서도 사실적 사태와 비사실적 사태를 모두 연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도’ 양보 구문은 선행절 사태의 내용이 사실성을 확보하는 사건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sup>25)</sup>

(26) 장군은 어깨에 총을 맞고도 전선에 뛰어들었다.

(26) 역시 (25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인 사태이므로 선행절 사태를 구성하는 명제는 사실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 접속 구성의 선행절이 사실적 사태를 표상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비사실적 사태 구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사실적 양보에 쓰인 ‘-고도’의 용법을 보도록 하자.

(27) 가. 밥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

나. 밥을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르다.

‘-고도’ 접속 구문 (27가)의 ‘밥을 먹-’은 사실적 사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후행절 사태 ‘배가 고프-’는 비록 인과의 차원에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나 분명히 선행절의 사태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다. (27나)의 선행절 사태 또한 ‘밥을 먹지 않-’이라는 사실적 사태가 발현된 상황에서 ‘배가 부르-’가 표상된 것이다. 즉, 이러한 양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도’의 기능이다. 이를 ‘-어도’ 구문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28) 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을 안 친다.

나. 물에 빠지고도 개해엄을 안 친다.

(28가)의 선행절 사태 ‘물에 빠지-’는 사실성을 담보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25)의 세 예문들에서 각 선행절 사태의 사실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임흥빈(1998: 603)에서 ‘-어’를 부정(不定)법적으로 이해한 견해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28가)의 양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결어미 ‘-어’가 자신과 통합하는 선행절의 사실성 여부는 물론, 사태 구현의 의미적 성격에 대해서도 중립적임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가 보조사 ‘도’와 통합하여 형성되었을 연결어미 ‘-어도’ 역시 이러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5) 장요한(2009: 498~499), 구재희·장채린(2014: 97) 참조할 것.



이에 반해 (28나)의 선행절은 이미 ‘물에 빠진’ 상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개해업을 안 치는 시점이 기준시라면 물에 빠진 사건시는 과거이므로, 선행절 사태 발생 후 후행절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행절 사태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면 선행절 사태는 당연히 사실성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고’의 계기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이은섭·진가리(2016: 56)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극단적 상황에서 ‘-고도’가 비사실적 양보를 표상한다고 설명하면서 (29가)의 용례를 들었다.

(29) 가. 너 나 죽고도 내 욕할 거냐?!

나. 그는 태평양에 고립되고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29가)는 선행절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의 가정하에 후행절 사태가 뒤따른다. (29가)에서 죽음이 현실화되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나의 죽음’이라는 상황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비사실적 가정임을 알 수 있다. 극단적 상황이 선행절 사태에 진술된 (29나) 역시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가 ‘태평양에 고립’되는 상황은 현재 그의 상태를 진술하고 있다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비사실적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절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일 경우에는 사실성에 위배되는 사태의 상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때 접속의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 ‘-고도’는 여전히 앞서 살핀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선, 후행절의 계기성(繼起性)을 나타낸다. 선행절 사태를 전제로 하는 후행절 사태의 성립은 당연히 시간적으로 선, 후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순욱(2017: 33)에서도 ‘-고도’ 양보 구문의 선행절 사태가 사실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례를 제시하였다.

(30) 지금이라면 나는 그 5원을 내지 않고도 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1) 가. 면접에 가지 않는다면, 철수는 시험을 잘 보고도 떨어질 것이다.

나. #철수는 시험을 잘 보고도 떨어질 것이다.<sup>26)</sup>

이순욱(2017: 33)은 (30, 31가)에서 ‘-고도’ 양보문이 조건문의 영향권하에서 사실성에 중립적임을 지적하였다.<sup>27)</sup> (30)에서 ‘5원을 내는지’가 불확실하고 (31가)도 ‘철수

26) (31나)는 좋은 성적이 합격으로 귀결되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여기서 화용론적 파탄의 표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설정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27) 이순욱(2017: 33)은 원문에서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사실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사실성’으로 표현하였다.

가 실제로 시험을 잘 봤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30, 31가)의 용례는 '-고도' 양보문이 조건문의 주절에 위치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조건문이 없는 상황에서 '-고도' 양보 구문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31가)에서 조건문을 생략해 보자. 그렇다면 (31나)의 경우와 같이 어떤 부가적인 조건이 별도로 개입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본' 사실과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동시에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고도' 접속 구성이 선행절 사태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이 희박한 용례를 더 살펴보고자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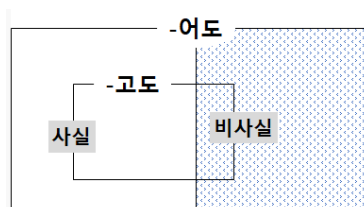
- (32) 가. (이마리가 출현하는 영화를 보려는 상황) 응 난 이마리만 봐도 배부르거든.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드라마, 스타의 연인5회)
- 나. (너 만나기 전에 너 없이 삼십칠년을 살았는데, 이제와 너 없이 못살 기야 하겠냐?) 세끼 밥만 먹고도 살라면 살지. (드라마, 굿바이 솔로 6회)

(32가)는 향후의 사태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낸다. (32나)도 '최소한으로 밥만 먹는' 상황을 표상했으므로 거의 반사실적 가정에 가까운 사태를 진술한 것이다. (32가)는 '이마리만 본다면'이라는 조건하에서 형성된 진술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배제하고 진술할 경우에도 의미를 전달함에 전혀 무리가 없다. 다만, 이 경우는 반사실적 가정을 활용한 극단적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과장되게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2나) 역시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특정한 조건이 부과되어서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화자는 사실성에 무관한 사태가 선행절에 오는 '-고도' 양보 구문을 발화할 수 있다.

이제, 사실성과 관련하여 '-어도'와 '-고도'가 지니는 의미 영역과 두 어미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어도'와 '-고도'의 사실성 표현 관계<sup>28)</sup>



28) 해당 도식의 '비사실'은 '반사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부정되는 양상의 양보와, 기대가 부정된 상황이 원인이 되어 유발되는 사태가 후행절에 실현되는 양보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선, 후행절이 보여 주는 극단적인 양보의 양상을 논의하였다. ‘A이면 B’에서 양보 구문이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짐을 보았고 A와 B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므로 서로 필요충분조건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특징도 있음을 알아보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도’ 구문은 ‘-어도’ 구문과 달리 양보문의 선행절이 사실적인 사태를 나타낸다.

### 3.2.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

이번 절에서는 연결어미 ‘-고도’가 아니라 연결어미 ‘-고’가 이끄는 선행절에 보조사 ‘도’가 통합하여 형성된 접속 구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문은 연결어미 ‘-고도’ 접속을 통해 형성된 구문과 외견상 일치한다. 그러나 이 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핀 양보의 연결어미 ‘-고도’ 구문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기대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당연히 통사적으로도 양보 구문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사적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장에서 논의할 것이고 본 장에서는 그 의미적 양상을 살펴보겠다.

(33) 가. 그 영화는 슬프고도 아름답다.<sup>29)</sup>

나. 그 영화는 아름답고도 슬프다.

(34) 가. 그 영화는 슬프고 아름답다.

나. 그 영화는 아름답고 슬프다.

(33가)의 선행절 사태인 ‘그 영화는 슬프-’는 후행절 사태인 ‘그 영화는 아름답-’과 계기적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슬프-’가 표상하는 사태와 ‘{아름답/아름답지 않}-’이 표상하는 사태가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선행절이 되어도 무방한데 이는 (33가)를 (33나)로 대체해도 의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보조사 ‘도’가 통합되지 않은 대등 접속문인 (34가)가 (34나)와 같이 환언된다는 사실과 완벽하게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에 선행절 사태로 인해 기대되는 후행절 사태가 부정되는

29) 장요한(2009: 494)에서 ‘그 이야기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내용이다’ 용례를 들어 양보 연결어미로 ‘-고도’를 처리하였다.

현상은 포착되지 않는다. 즉, (33가)는 양보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론적 속성인 기대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 구문인 것이다.<sup>30)</sup>

전술한 바와 같이 ‘기대 부정’이라는 개념은 화자가 선행절의 내용을 근거로 예상할 수 있는 후행절의 내용이 자신의 예측 혹은 기대와 상반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33가)의 경우에는 [슬픔]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대 항목에 [아름다움]을 상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대라는 기제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선, 후행절이 접속될 때 화자가 일종의 ‘의외성’을 표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겠다.<sup>31)</sup> (33가)는 기대되는 바와 무관한 사항이 후행절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부정된 것으로 오해되어 온 문장이다. 앞서 언급한 사전류나 문법서에서 기술한 ‘-고도’의 의미와 용례도 이러한 오해를 낳는 데 일조했음을 부인하기 어렵겠다.

더욱이 (34가)는 감정 표상 어휘 형용사 서술과 지각 표상 형용사 서술이 이끄는 선, 후행절이 ‘-고’를 사이에 두고 단순 나열된 것이다. 그런데 (33가)와 같이 ‘도’가 개재되면 선행절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감정의 정도성이 강화되어 후행절 서술어가 표상하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 덩달아 부각된다. 연결 어미에 보조사 ‘도’가 통합한 구성의 경우, 보조사 ‘도’는 선행절의 속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up>32)</sup> 이러한 점에서 (34가)는 단순 나열에 불과한 반면에 (33가)는 보조사 ‘도’의 강조·강화 기능으로 인해 선, 후행절 상태 동사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점만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33가)가 대등 접속의 연결어미 ‘-고’가 이끄는 선행절에 보조사 ‘도’가 통합한 구성으로 앞장에서 살펴본 양보 구문과는 별도의 구문임을 알 수 있다.<sup>34)</sup>

30) 김종록(2010: 171)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고도’를 ‘-는데도 불구하고’와의 교체 가능성을 이유로 양보의 의미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슬프-’와 ‘아름답-’이 ‘-는데도 불구하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직관이 의미론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198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 “슬프도록 아름다운”에서 대중들이 ‘슬프-’와 ‘아름답-’을 양보의 양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큰 저항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고도’와 같은 어미를 통해 통합했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슬프고도 아름답다’에서 ‘-고도’가 양보의 연결어미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객관적 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31) ‘의외성’은 ‘증거성’과 관련된 개념인 mirativity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화자의 이러한 인식이 이 개념과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의외성은 인식의 차원에서 화자나 청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반응 정도로 파악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송재목(2016) 참조할 것.

32) 이익섭·이상역·채완(2012: 178)에 따르면 보조사 ‘도’가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부사나 명사 뒤에서 쓰이기도 하고(예문 (1)), 임동훈(2009: 110)은 보조사 ‘도’가 연결 어미 ‘-고’와 결합하여 나열의 강화형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예문 (2)).

(1) 사람이 많이도 모였구나.  
(2) 세상은 넓고도 아름다웠다.

33) 김정민(1991: 55)은 보조사 ‘도’를 ‘역동’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양보와 대립’, ‘감탄과 강조’의 의미로 구분하였다. 한편 함병호(2013)는 보조사 ‘도’가 기본적으로 ‘추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며 통합형 연결어미 ‘-어도, -더라도, -고도’ 등에서 ‘도’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것은 ‘도’의 기본 의미인 추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4) 연결어미 ‘-고’의 기능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임흥빈·장소원(1995), 윤평현(2005), 이은경(2000) 등은 ‘나열’로, 서정수(1994), 임동훈(2009)은 ‘병렬’로 지칭하였다.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선, 후행절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어휘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논할 것이다. 유사하거나 이질적인 성격의 서술어가 접속된 경우와 동일 서술어가 결합된 경우로 나누어 살핀다. 앞서 (33)에서 ‘슬프다’와 ‘아름답다’와 같이 이질적인 두 서술어가 접속되는 경우를 살핀 바 있다. 그런데 아래의 예는 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선, 후행절 서술어를 지닌 문장의 예이다.

- (35) 가. 차갑고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09회)  
 나.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35가)는 선행절의 사태와 유사한 의미의 후행절이 뒤따름으로써 관형사절의 핵 명사인 ‘시선’의 속성이 강조되었다.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표상하는 선, 후행절 형용사 ‘차갑-’과 ‘냉정하-’가 대등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35나)도 또한 ‘차갑-’과 ‘냉정하-’가 ‘-고’로 연결되어 선, 후행절의 대칭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35가)는 (35나)와 같은 대등 접속 구성의 전형적인 양상에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사 ‘도’의 특징이 구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동일 서술어가 나열된 구문이다.

- (36) 가. 갈 길이 멀고도 멀다.  
 나. 갈 길이 멀고 멀다.

(36가)는 동일한 형용사 어간이 ‘-고도’를 사이에 두고 반복됨으로써 그 형용사가 표상하는 진술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sup>35)</sup> (36나)는 대등 접속의 연결어미 ‘-고’ 구문으로 역시 동일한 형용사 어간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36가) 역시 ‘도’가 개재됨으로써 선, 후행절 서술어 의미가 강화되었음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일한 구성의 반복 표현 효과가 강조임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 ‘도’의 추가적 통합으로 진술 대상의 주된 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33가)와 (35가), (36가)의 용례들을 통해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보조사 ‘도’의 의미 기능으로 선행절 사태가 강조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33가)와 같이 이질적인 의미의 서술어가 선, 후행절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전제된 선행절 사태에 후행절

35) 김종록(2010: 171)과 송남남(2014: 356)은 동일 형용사 반복 구조의 구문을 ‘첨가’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고도’에서 ‘도’의 처리는 동일하지 않다. 김종록(2010: 171)은 ‘역동’ 보조사로, 송남남(2014: 356)은 ‘강조’로 보았다.

36) 임성규(1989: 25-26)에서 ‘멀고 먼 나라’ 용례를 들어 연결어미 ‘-고’에 의해 형용사가 반복되어 ‘멀다’의 의미가 강화되었음을 설명한다.

사태가 추가됨으로써 진술 대상의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았다. 또한 (35가)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표상하는 서술어가 선, 후행절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진술 대상의 주된 의미적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점도 확인된다. (36가)와 같이 동일 서술어가 선, 후행절에 실현된 해당 접속 구문은 강조를 위한 기제가 어휘 반복과 ‘도’ 추가 통합의 방식으로 두 차례나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고’ 대등 접속 구문이 보조사 ‘도’를 통해 진술 대상의 의미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결어미 ‘-고’가 이끄는 선행절에 보조사 ‘도’가 통합한 구성으로서의 ‘-고도’ 구문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의 ‘-고도’ 구문에서는 선, 후행절의 사태가 나열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구문은 선행 서술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 혹은 이질적인 특성의 서술어가 이끄는 사태를 후행절에 추가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 및 강화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이 구문은 외형상 하나의 연결어미로 굳어진 양보의 ‘-고도’ 구문과 동일해 보이나 그 의미적 성격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다.

#### 4. '-고도' 접속 구성의 통사적 특징

본 장에서는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을 선행절 서술어의 제약 양상, 선행절 서술어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통합 양상, 선, 후행절 동일 주어 제약 양상, 후행절의 문장 유형 양상, 선, 후행절 교체 양상으로 나누어 통사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 4.1. 연결어미 '-고도' 구문

###### 4.1.1. 선행절 서술어의 제약 양상

'-고도' 양보 구문에서 선행절 서술어의 선행 어간 결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양보의 의미를 표상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선행절 사태에 서술어의 어휘 속성으로 인한 제약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7) 가. 나보다 나이 더 먹고도 늦둥이 낳는 여자들도 많다.

(드라마, 장밋빛 인생, 07)

나. 그 경기는 이기고도 진 게임이었다.

(38) 가. \*그녀는 예쁘고도 남자친구가 없다.

나. 짧고도 긴 시간이 지나고.

(영화, 품행 제로)

(39) 가. 할아버지는 100세이시고도 정정하시다.

(장요한(2009))

나. 내 친구는 한국 사람이고도 한국말을 잘 못한다.

(이선영(2011: 83))

다. 언니와 나는 가족이고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말뭉치, 국립국어원)

(40) 가. 그 노인은 많은 돈이 있고도 가난하게 산다.

(장요한(2009: 494))

나. 일이 있고도 이렇게 태연히 만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드라마, 결혼하고 싶은 여자, 13)

양보 구문을 이루는 연결어미 '-고도'는 결합하는 선행 어간에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즉, '-고도'에 결합하는 서술어에는 모든 용언이 올 수 있다. (37)~(40)은 각각 동사, 형용사, '이-', '있-'이 서술어인 선행절과 '-고도'가 통합한 예문으로 (38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격하다.<sup>37)</sup> '이-'와 '-고도'의 결합형인 (39)는 말뭉치 용례들

37)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의존 형용사, 지정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본고에서는 의존 형용사로

중에서 제한적으로만 찾을 수 있었지만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고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있-’과 ‘-고도’의 결합형 (40나)의 용례 또한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에서 검출된 유일한 용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문의 문법성이 그리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요약하자면, 양보의 ‘-고도’는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 동사가 실현되는 데 있어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선행절 서술어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비문과 적격문이 공통으로 보인다. 또한 의존 형용사 ‘이-’나 형용사 ‘있-’이 ‘-고도’에 선행할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한 문장을 형성한다.

#### 4.1.2. 선행절 서술어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통합 양상

양보의 ‘-고도’가 선어말어미 ‘-시-’, ‘-었-’, ‘-겠-’ 과의 통합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을 받는지 여부도 살펴보자.

선행절 서술어가 ‘-고도’와 통합할 경우에, 어간과 ‘-고도’ 사이에 선어말어미 ‘-시-’의 출현에는 (42가)와 같이 별다른 제약이 없기도 하지만 (43가)와 같이 제약을 보이기도 한다.

(42) 가. 수영이 이혼하는 거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드라마, 가문의 영광 06)

나. 수영이 이혼하는 거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43) 가. \*문제가 어려우시고도 쉬우신다.

나. \*문제가 어렵고도 쉬우신다.

다. 문제가 어렵고도 쉽다.

(42가)는 주어인 청자가 존대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선, 후행절의 서술어 용언 어간에 모두 실현되었다. 물론 여타 접속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2나)에서 확인되듯이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 ‘-시-’가 실현되지 않아도 후행절 서술어 어간에 ‘-시-’가 실현되어 있으면 주체 높임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구문에서 선, 후행절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연결어미 ‘-고도’가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를 접속하여 양보를 나타내는 (43가, 나)에서는 ‘-시-’가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 어간에 결합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거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관련된 대상이나 신체

---

보겠다. (40가, 나)의 ‘있다’도 형용사의 경우이다. 결국 (38~40)까지의 논의는 선행절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에 드러나는 제약 양상에 대한 것이다.



의 일부를 높이는 선어말어미이므로 ‘어렵다’와 ‘쉽다’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높일 수는 없다. 따라서 (43다)에서와 같이 선, 후행절에 ‘-시-’가 실현되지 않아야 적격한 문장이다.<sup>38)</sup>

선어말어미 ‘-었-’과의 통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44) 가. 철수는 천장에서 떨어지고도 안 다쳤다.

나. \*철수는 천장에서 떨어졌고도 안 다쳤다. (장요한(2009: 493))

다. 철수는 천장에서 떨어졌고 안 다쳤다.

(45) 가. 철수는 천장에서 떨어져도 안 다쳤다.

나. 철수는 천장에서 떨어졌어도 안 다쳤다.

(44)는 양보의 ‘-고도’ 구문에서 실현되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실현 양상이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의 실현 양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용례들이다. (44가)는 ‘-고도’의 계기성으로 인해 후행절 서술어에만 과거가 표상되어 있어도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고도’의 계기성으로 인해 (44가)의 선행절은 ‘-었-’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행절 사태의 이전 사태로 인식되므로 자연스럽게 과거 이전의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오히려 선행절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되면 (44나)에서 확인되듯이 비문이 된다.

(44다)의 ‘-고’ 접속문이 (44가)와 동일하게 선, 후행절이 계기성을 바탕으로 사태가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출현이 문제가 없다.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고’ 접속문이 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실현에서 구별되는 점이다. (45가, 나)에서와 같은 또 다른 양보 구문인 ‘-어도’ 구문에서 ‘어간-었-어도’ 구성을 이루는 것도 ‘-고도’ 구문과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선행절 서술어 활용에서 추측이나 의지 등의 양태성을 표상하는 선어말어미 ‘-겠-’의 실현 여부 역시 주목을 요한다.

(46) 가. 야단을 맞고도 좋단다. (이은섭·진가리(2016: 17))

나. \*야단을 맞겠고도 좋단다.

38) 우리는 ‘할아버지께서는 지팡이가 기시다.’와 같은 용례의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쉽-’과 같은 형용사가 주체의 심리적 경험을 진술하는 성격의 용언임을 고려할 때, 주체 쪽으로 기울어진 심리 상태 진술의 경우라면 ‘쉬우시/어려우시-’와 같은 용례의 적격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46나)에서 확인되듯이 (46가)와 같은 구문에서 선어말어미 ‘-겠-’이 선행절 서술어에 실현되지 못한다. 실제로 ‘-고도’가 ‘-겠-’과 결합한 ‘-겠고도’의 용례는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검색에서도 오류가 아닌 용례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태를 나타내는 ‘-겠-’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동훈(2001)은 ‘-겠-’이 문장에 따라 ‘미래, 추측, 가능성, 의지’의 의미를 가지며 모두 ‘예정’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분관 등(2015)은 ‘-겠-’이 ‘추측, 의도’ 외에 ‘과정성, 공손성’을 나타내는 사례를 들었고, 양태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주관적인 범주’라고 하였다. 강신희(2018)는 ‘-겠-’의 의미를 ‘의향, 의도(의지), 완곡, 추측(추정), 미래, 가능성(능력), 관용적 표현’으로 보았으며, 양태는 ‘명제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겠-’이 보이는 양태적 특징을 주로 주관적인 판단과 연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먼저 ‘-겠-’이 ‘-어도’ 양보 구문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자.<sup>39)</sup>

- (47) 가. 그러니까 떨려 죽겠어도 참아. (드라마, 시크릿가든01)  
 나. 천체의 움직임은 알겠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무위키, ‘아이작 뉴턴’ 설명)  
 다. 아무리 갓끈을 고쳐매야겠어도, 오이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경제, 정치면 기사)

(47)에서 확인되듯이 ‘-어도’는 ‘-겠-’과 통합할 수 있는 듯하다. (47)의 예문들에서 ‘-겠-’은 각각 추측, 가능성,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sup>40)</sup> (47가)는 ‘떨려 죽을 것 같아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47나)는 ‘동작주의 능력’을 표현하며, (47다)는 ‘동작주의 자발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겠어도’는 가능한 반면에 ‘-겠고도’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겠-’의 양태적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장에서 ‘-어도’의 선행절은 사실성을 표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도’는 선행절이 사실적 사태를 표상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고도’가 그 선행절 사태의 사실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의미적 특징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주로 하는 양태적 기능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

39) 21C 세종계획 말뭉치 구어에서는 ‘죽겠어도’가 포함된 용례만 확인이 되었다. (47)의 다른 예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검색 결과 ‘-겠어도’는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본고에서는 ‘-겠-’이 가지는 의미를 임동훈(2001)의 설명을 따라서 구분하였다.

한 차원에서 양보의 ‘-고도’ 구문의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는 ‘-겠-’의 통합이 저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양보의 ‘-고도’는 선어말어미 ‘-시-’, ‘-었-’, ‘-겠-’과의 통합에 있어 제약을 보인다. 다만 ‘-고도’가 ‘-시-’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비문과 적격문이 공통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4.1.3. 선, 후행절의 동일 주어 제약 양상

양보의 ‘-고도’ 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의 일반적 기술이다. 일부 용례들은 선, 후행절의 주어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거나 이중주어문으로 쓰여 주어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나 주어 일치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모호한 용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양보 ‘-고도’ 구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48) 가. 넌 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못 하잖아. (드라마, 노란손수건044)

나. \*넌 교육을 받고도 난 제대로 못 하잖아.

(49) 가. 힘을 신고도 잘 뛰다.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 6회)

나. \*순희가 힘을 신고도 영희가 잘 뛰다.

(50) 가. 가깝고도 먼 나라죠. (영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나. \*일본은 가깝고도 미국은 먼 나라죠.

(48가)는 선,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문장으로, 후행절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선, 후행절 주어의 동일성은 선행절의 주어와 동일하지 않은 주어가 후행절에 실현된 (48나)가 비문이 된다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하다. (49가)는 선, 후행절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49나)가 비문이 되는 양상을 통해 선, 후행절 주어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0가, 나)도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적격문임을 보여 준다.

한편 아래의 용례들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살핀 경우와 같이 명확하지는 않은 듯하다.

(51) 승규는 안경을 쓰고도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

(52) 교통사고가 나고도 다치지 않았다.

(51)은 선행절 주어가 ‘승규는’이고 후행절 주어가 ‘칠판 글씨가’로 선, 후행절 주어

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후행절의 온전한 형식을 승규는 글씨가 안 보인다'로 상정 가능하므로 선·후행절 주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52)는 선행절 주어가 '교통사고가'이고 후행절 주어는 선행절의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로서 선, 후행절 주어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앞서 언급된 피해자를 '그'로 상정해 보면 '그는 교통사고가 나고도 다치지 않았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장 성분적으로는 '교통사고가'가 선행절 서술어 '나-'의 주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통사고가'에 선행하는 성분으로 상정된 '그는' 역시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를 관통하는 주어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주역에 해당하는 대상이, 선행절 구성에서 '교통사고가 나-'라고 하는 사건 전체를 서술어로 하는 주어 '그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용례 역시 동일 주어 제약을 준수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51)과 (52)의 용례 역시, 선,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구문으로, '-고도' 양보 구문의 주어 제약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이는 구문들인 것이다.

(48)~(52)를 통해서 '-고도' 양보 구문의 선, 후행절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확인된 듯하다. 그러나 다음의 용례들은 '-고도' 양보 구문 모든 용례가 선, 후행절 주어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 (53) 가. 너 나 죽고도 내 욕할 꺼냐?! (드라마, 커피하우스 03)  
 나. 너 결혼해서 떠나고도 한참 있었지. (드라마, 거짓말 02)  
 다. 마노인 돌아가시고도 세 시간 넘게 서 있더구나. (영화, 방자전)

(53가)는 선행절의 '죽-'은 '나'가 주어인 서술어가 된다. 후행절은 '나 죽-'에 선행하는 '너'를 주어로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선행절에 드러난 서술어가 '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선, 후행절의 주어가 각각 '나'와 '너'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도' 구문의 선, 후행절 주어가 일치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자면 (53가)에서 보듯이 통사적 주어의 일치가 엄격하게 준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sup>42)</sup> (53나)는 선행절 주어가 '너'이고 후행절 주어는 화자나 화자가 포함된 집단이다. (53다)는 '마노인'이 선행절 주어이며 후행절 주어는 명시적

41)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들에는 두 가지 유형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나는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법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행위주, 경험주, 대상과 같은 의미 관계이다. 문법 관계와 구별되는 의미 관계에 따라 구별되는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의 역할을 의미역이라고 한다.

42) 아버지 흉을 보는 아들인 '너'와 그것을 꾸짖는 어머니인 '나'가 나누는 대화로 '너'와 '나'가 밀접한 관계로서 '너는 내가 죽다'라는 이중주어문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선, 후행절 주어가 일치한다는 기존의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노인’일 가능성은 없다. 역시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고도’ 구문은 선행절 사태를 전제로 후행절 사태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은 선, 후행절이 관련을 맺어서 일련의 전체 사태를 구현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선, 후행절의 관계가 마치 인과 관계와 같은 정도로 강하다고 해서 두 절이 동일한 주어를 지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4.1.4. 후행절의 문장 유형 양상

한국어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눌 수 있다.<sup>43)</sup> 그런데 양보의 ‘-고도’ 구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형성될 수 없다.

- (54) 자기가 말하고도 깔깔 웃는다.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 10회)  
(55) 가. 박재성씨랑은 이혼하고도 연락하요? (드라마, 워킹맘 9회)  
나. 넌 그 꼴 당하고도 억울하지도 않냐?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50)

(54)는 양보의 ‘-고도’ 후행절에 평서문이 오는 용례이다. ‘-고도’ 구문은 대부분 평서문이나 (55)에서와 같이 의문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때 의문문은 판정의문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단언의 화행 의미를 표상할 수도 있다. (55가)는 ‘연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판정의문문일 수도 있으나 ‘이혼하고 연락하면 안 된다’ 또는 ‘이혼하고 잘 연락하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로 후행절이 긍정의 형식으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55나)는 ‘그런 꼴을 당하여 억울함에 틀림없다’는 의미로 후행절이 부정의 형식으로 표현되나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후행절에서 긍정 의문 형식으로는 부정 단언을, 부정 의문 형식으로는 긍정 단언을 진술하는 것으로 문맥·화맥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56) 가. 왜 사람 보고도 모른 척하요? (드라마, 열아홉순정 1-30회, 32-79회)  
나. 넌 사람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냐? (드라마, 열아홉순정 1-30회, 32-79회)

(56가)는 후행절 서술어에 ‘알다’와 대립을 이루는 ‘모르다’ 어휘로 부정의 양상을 표상한다.<sup>44)</sup> 그 부정어를 의문문 형식으로 취하여 ‘보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아는

43) 중등 교육 과정에서 상정한 문장 유형에는 이외에도 감탄문이 더 추가되어 있다.

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6나)도 '있다'의 부정어 '없다'를 사용하여 부정 의문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고 인사해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45)</sup>

다음의 (57가, 나)는 양보의 '-고도'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는 제약을 보이는 전형적인 용례들이라 할 것이다.

(57) 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시험에 떨어지세요.

나. \*오래간만에 만나고도 인사하지 맙시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므로 청자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가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양보의 '-고도' 구문이 그 후행절로 기대부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화행인 명령의 문장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57나)에서 확인되듯이, 동일한 성격의 화행인 요청의 청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고도' 양보 구문은 후행절에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식이 오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는 제약을 보인다.

#### 4.1.5. 선, 후행절 교체 양상

양보의 연결어미 '-고도' 접속 구문은 선행절을 전제로 하여 후행절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 후행절이 의존적인 의미 관계를 가진다. 이는 '-고도' 구문이 전형적인 종속 접속 구성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선,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비문이 되거나 의미 변화가 생긴다.

(58) 가.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요.

나. \*쓸 수 있고도 안 봐요.

(59) 가. 이기고도 진 경기

나. 지고도 이긴 경기

(58가)와 (59가)의 선, 후행절 위치를 바꾸었을 때 (58나)는 비문이 된다. 반면 (59나)는 적격문이나 의미가 달라진다. (59가)의 경기 결과는 이겼으나 (59나)는 진 경기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44) 이은섭(2009: 12) 참조할 것.

45) 임흥빈(1987: 75~76)에서 '알다/모르다', '있다/없다'가 부정 어휘로 부정문을 형성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도’ 구문에서 선행절 서술어 어간으로 동사, 형용사, 의존형용사가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비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선어말어미와의 통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선행절 서술어 어간과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은 적격문과 비문을 공통으로 보이고, 시제나 양태 등을 표상하는 선어말어미 ‘-었-’, ‘-겠-’과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동일 주어로의 해석도 수용이 가능한 경우가 적잖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후행절의 문장 유형은 평서문과 의문문으로의 실현에는 제약이 없고 명령문과 청유문으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도’ 구문은 종속 접속문인 관계로 선,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4.2.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

이번 절에서는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는 연결어미 ‘-고도’ 양보 구문에 나타나는 화자의 기대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통사적으로도 ‘-고도’ 양보 구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 4.2.1. 선행절 서술어의 제약 양상

‘-고’와 ‘도’ 통합 구성에서 선행절 서술어의 선행 어간 제약을 살펴보자.

(60) 가. 그녀는 예쁘고도 친절하다.

나. 이게 너의 고질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야.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E09)

다. 재미있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라. 긴장되고도 불안한 얼굴 (드라마, 탐나는도다 10)

‘-고’와 ‘도’ 통합 구성에서는 선행절 서술어 어간이 (60가)와 같은 형용사, (60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존 형용사 ‘이-’ 구문이 ‘-적(的)’ 명사구 형태와 빈번하게 통합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있다’는 (60다)에서와 같이 합성어 형태로 구문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선, 후행절의 명제 내용이 나열의 ‘-고도’로 접속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 후행절 서술어가 동일한 품사에 속하거나 서로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0라)와 같이 동사가 선행절 서술어이며 형용사가 후행

절 서술어인 구문은 우리가 살펴본 말뭉치에서 제한적으로만 검출된다. (60라)의 선행절 서술어 ‘긴장되다’와 같은 피동사는 동작주의 의지가 반영된 전형적인 동작성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영향을 입는 수동적 의미가 주된 의미 속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동사 부류는 타동사 부류나 동작 동사에 속하는 자동사 부류에 비해 훨씬 형용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0라)의 적격성이 보장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추정된다.

(60)에서 확인되듯이 ‘-고’와 ‘도’ 통합 구성은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말뭉치 검출 결과, 형용사와의 통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4.2.2. 선행절 서술어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통합 양상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선어말어미 ‘-시-’, ‘-었-’, ‘-겠-’의 통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고’와 ‘도’ 통합 구문은 선행절 서술어 어간 뒤에 선어말어미 ‘-시-’와 ‘-었-’이 별반 제약 없이 통합되며 ‘-겠-’과의 결합에서는 제약을 보인다.

(61) 가.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우시고도 친절하시다.

나. 우리 어머니는 아름답고도 친절하시다.

(62) 가. 계속 생각한다. 참 좋았고도 고마웠던 너.

나. 계속 생각한다. 참 좋고도 고마웠던 너.

(61가)는 문장의 주어를 구성하는 명사구인 ‘어머니’가 존칭의 대상이므로 선, 후행절에 모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실현되었다. (62가)도 진술 대상에 대한 서술 내용이 과거이므로 선, 후행절 모두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실현되었다. 이 두 용례에서 각각의 선어말어미들은 (61나)와 (62나)에서 확인되듯이 후행절에서만 가시적인 통합 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선,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접속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아울러 선, 후행절의 위치가 바뀌어도 이러한 양상은 여전히 유지된다.

(63) 가.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우시고 친절하시다.

나. 우리 어머니는 아름답고 친절하시다.

(64) 가. 계속 생각한다. 참 좋았고 고마웠던 너.

나. 계속 생각한다. 참 좋고 고마웠던 너.



(63가)와 (64가)는 연결어미 ‘-고’ 접속문에서 ‘-시-’나 ‘-었-’이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실현됨을 보여 주며 (63나)와 (64나)에서는 ‘-시-’나 ‘-었-’이 후행절에만 실현되었다. 이는 연결어미 ‘-고’ 접속문에서 ‘-시-’나 ‘-었-’이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나 후행절 서술어 어간에만 구현되어도 문법상 지장이 없음을 보여 준다.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도 ‘-고’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나 ‘-었-’이 선, 후행절 각각에 실현되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어 말뭉치에서 ‘-시-’나 ‘-었-’이 후행절에서만 실현되는 용례가 훨씬 빈번하다. 이는 구어적 성격이 강한 구문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한편, 앞 절에서 우리는 양태성을 표상하는 선어말어미 ‘-겠-’이 연결어미 ‘-고도’와 자유롭게 통합하지 못하는 양상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연결어미 ‘-고’가 이끄는 선행절에 보조사 ‘도’가 통합한 구문의 양상도 살펴보자.

- (65) 가. 깊고도 아픈 사랑이 묻어나온다. (드라마, 못된 사랑 8부)  
 나. \*깊겠고도 아프겠는 사랑이 묻어나온다.  
 다. \*깊겠고도 아픈 사랑이 묻어나온다.  
 라. \*깊고도 아프겠는 사랑이 묻어나온다.

(65)는 선어말어미 ‘-겠-’이 ‘-시-’나 ‘-었-’과는 달리 대등 접속문의 경우에 선, 후행절 어느 쪽에도 그 통합이 어렵다. ‘깊-’은 성상 형용사이면서 심리 형용사적 성격을 일정 부분 보이기도 한다.(강이 깊다/속내가 깊다) ‘아프-’는 경험주 주어가 상정되는 지각 형용사이자 심리적 성격을 표상할 수도 있는 형용사이다.(팔이 아프다/마음이 아프다) 두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의지나 능력을 표상하는 ‘-겠-’과의 통합이 차단된다. 결국 어떤 상태에 대한 추정이나 예측 정도의 ‘-겠-’만이 두 형용사 어간에 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65)의 용례는 진술되는 ‘사랑’이 화자의 추정이나 예측의 대상이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고’와 ‘도’ 통합 구문의 선행절에서는 ‘-겠-’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연결어미 ‘-고’와 ‘-겠-’의 결합에는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66) 가. 억울해 죽겠고 힘도 없다. (드라마, 싸인 01)  
 나. 못 믿겠고 의심쩍지만 기에 눌러 다시 아이 아빠한테로 간다.

(드라마, 뉴하트 2부)

(67) 가. \*억울해 죽겠고도 힘도 없다.

나. \*못 믿겠고도 의심쩍지만 기에 눌러 다시 아이 아빠한테로 간다.

(66가, 나)에서는 ‘-겠-’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도’를 추가하면 (67가, 나)와 같이 비문이 된다.

한편,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선행절에는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오는 구문이 빈번히 검출되었다. 이러한 구문의 선행절에 ‘-겠-’ 실현 여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68) 가. 그 캠프는 재미있겠고 유익하겠다.

나. ?그 캠프는 재미있겠고도 유익하겠다.

(68가)는 캠프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유익할 것 같다’는 의미로 주어의 상태를 추측하는 내용이 나열된 문장으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 보조사 ‘도’를 결합한 (68나)는 화자에 따라 그 적격성이나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68나)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찾을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성인 ‘-고도’ 구문에서 왜 ‘-겠-’과의 통합이 제약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고’와 ‘도’ 통합 구문은 ‘-시’, ‘-었-’과는 결합이 자유로우나 ‘-겠-’과는 결합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겠-’과의 결합은 선행절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 4.2.3. 선, 후행절의 동일 주어 제약 양상

‘-고’와 ‘도’ 통합 구문은 선, 후행절의 주어 실현에 있어서 주어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69) 가. 이것이 바로 내 치세에 가장 보람되고도 기특한 일일지로다!

(드라마, 세종월06)

나. 연이란 게 참으로 질기고도 무서운 건가 봅니다. (드라마, 맛있는 청혼03)  
다. 그 고통은 깊고도 깊다.

(69가)는 ‘이것이’, (69나)는 ‘연이란 게’, 그리고 (69다)는 ‘그 고통은’이 선, 후행절의 주어로 실현되어 동일 주어 제약이 준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섭·진가리(2016: 50, 63)에서 나열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에 ‘도’가 통합한 구문에서는 선, 후행절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반면, 보조사 ‘도’가 통합하지 않고 연결어미 ‘-고’만으로 접속된 구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고도’가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의 단순 결합형이라면 이때의 ‘-고도’가 보이는 통사적 특징은 ‘-고’와 동일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질적인 통사적 양상으로부터 나열의 ‘-고도’를 ‘-고’와 ‘도’의 단순 결합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음의 ‘-고’ 접속 구문의 용례를 살펴보자.

(70) 가. 산은 높고 물은 많다. (유현경(2017: 19))  
나. 산은 높고 푸르다.

(70가)에서 보듯이 ‘-고’ 접속 구문은 선, 후행절의 주어 일치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70나)는 (70가)와 동일한 연결어미 ‘-고’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로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함을 보여 준다. (70나)는 (69가~다)의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하나의 사물에 대해 어떤 특징을 나열할 때 선, 후행절 주어가 동일한 것과 유사한 경우이다.

‘-고’ 접속 구문의 다양한 실현 양상 중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특성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70나)와 같이 선행절에만 주어를 구현하여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함을 보인다. 이것은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확인되듯이 연결어미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는 선, 후행절 주어 일치 제약을 보인다.

#### 4.2.4. 후행절의 문장 유형 양상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가능한 문장 유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71) 가. 마음... 아프고도 무겁다. (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7회)  
나. 흥분되고도 어색한 표정으로 한데 모여서 떠들고 있다.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06회)

(72) 가. 그런 정장이 깔끔하고도 세련되지요?

나. 우리 재하 정도면 조건이 차고도 넘치지 않나? (드라마, 봄의 왈츠 12회)

(73) 가. \*깔끔하고도 세련되어라.

나. \*깔끔하고도 세련되자.

(71)과 (72)는 ‘-고’와 ‘도’ 통합 구문 후행절에 평서문과 의문문이 오는 용례이다. (73)은 ‘-고’와 ‘도’ 통합 구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고’와 ‘도’ 통합 구문에서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는 제한적이고 형용사인 경우가 다수임을 4.2.1에서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의 경우 종결 서술어에 형용사가 올 수 없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형용사가 명령문에 올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sup>46)</sup> 행위의 주체가 청자이나 아니면 화자와 청자의 합이나의 차이는 있지만 명령문과 청유문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따라서 명령문과 유사하게 청유문에도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예문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확인된다. 선, 후행절 모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서술어인 예문 (74)와 (75)를 보자.

(74) 가. 모두 점잖고 신중해라.

나. 모두 점잖고 신중하자.

(75) 가. \*모두 점잖고도 신중해라.

나. \*모두 점잖고도 신중하자.

연결어미 ‘-고’로 접속된 (74)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와 ‘도’ 통합 구문은 (75)와 같이 명령문과 청유문을 사용할 수 없다. ‘-고’와 ‘도’ 통합 구문은 ‘-고’ 대등 접속 구문에 보조사 ‘도’를 결합하여 진술 대상의 의미 속성을 강조한 것일 뿐인데 문장 유형 양상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유는 불확실하다. 서술어를 강조하는 ‘도’로 인해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의도가 오히려 덜

46) 유현경(2003: 194)은 종결어미 중 형용사는 ‘청유문, 명령문, 약속문, 감탄문’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정진우(2009: 68)도 명령문과 청유문은 문장을 맺는 서술어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임동훈(2011: 350)은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명령어미가 결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평서문과 달리 주어에 동작주 의미역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이지수(2016: 112~114)는 형용사로 분류된 것들 중에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동사 중에서 결합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하였다. 명령문이 가능한 형용사로는 ‘감사하다’, ‘냉담하다’, ‘슬기롭다’ 등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47) 임동훈(2011: 353)은 한국어의 지시 화행은 명령과 청유의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명령문을 넓게 해석하면 전자는 2인칭 명령으로 후자는 1인칭 복수(포괄적) 명령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고도’의 의미와 문법적 제약에 대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구분하여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논의가 이루어진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기존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일부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장과 2장에서는 배경과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한 양보 연결어미와 ‘-고도’에 대해 그 의미와 문법적 설명이 있었으나 다양한 용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고도’ 접속 구성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결어미 ‘-고도’가 표상하는 양보는 선행절 사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결과와 상반되거나 불일치되는 사태를 후행절에 나타낸다. 이러한 기대 부정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고도’ 양보 구문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논의하였다. 기대 부정이 후행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양보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는 달리 기대 부정이 문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표현되는 기대 부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에 직접적인 반대 어휘 등을 사용함으로써 의미적으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나타내는 양보의 경우도 살펴보았다.

전제 사태에 대한 기대의 부정 즉, 조건문의 선행절이 충분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 양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후행절이 필요조건임을 부정하는 것도 양보임을 확인하였다. 전제 사태와 기대 사이의 조건 형성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로부터 선, 후행절이 필요충분조건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양보문은 선행절을 부정하는 의미도 상례적으로 함축한다고 알려져 왔는데 검토 결과 전제와 기대를 표현하는 선, 후행절이 서로 필요충분조건을 형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도’ 양보문은 선행절 사태의 사실성과 비사실성을 모두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고도’ 양보문은 선행절 사태가 사실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부 극단적인 상황 또는 조건이 전제될 때 비사실적인 사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접속 구문이 선, 후행절을 나열시킬 때에는 양보 구문에 나타나는 화자의 기대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에서는 선, 후행절이 대등하게 접속된 형태로 문장이 구성된다. 선, 후행절

에 유사한 의미의 서술어 또는 다른 특성의 서술어가 사용되거나 동일한 서술어가 반복되어 대등적으로 나열되는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때 선, 후행절은 ‘-고’를 사이에 두고 단순 나열된 것에 더해서 ‘도’의 강조·강화 기능으로 인해 각각의 서술어가 강조된 의미를 형성하였다. 즉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은 대등 접속 구성의 전형적인 양상에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사 ‘도’의 특징이 구현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4장에서는 ‘-고도’ 접속 구성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양보의 ‘-고도’와 ‘-고’와 보조사 ‘도’ 통합 형태인 ‘-고도’는 선행절 서술어 어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러나 통합형인 ‘-고도’에서는 형용사가 일반적이고 양보의 ‘-고도’에서는 형용사의 경우에 비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선어말어미 ‘-시-’는 주어가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보의 ‘-고도’이든 ‘-고’와 보조사 ‘도’ 통합 형태이든 결합 여부가 결정된다. 선어말어미 ‘-었-’은 양보의 ‘-고도’와 결합이 어려우며 ‘-고’와 보조사 ‘도’ 통합 형태와는 결합이 가능하다. 선어말어미 ‘-겠-’은 ‘-고도’와의 통합에 제약을 보이는데 이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겠-’의 양태적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보의 ‘-고도’는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렇지 않은 예문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고’와 보조사 ‘도’ 통합 형태는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양보의 ‘-고도’나 ‘-고’와 보조사 ‘도’ 통합 형태 ‘-고도’는 후행절에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식이 오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는 제약을 보인다. 또한 양보의 의미일 때는 선,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져 전혀 다른 문장이 되지만 나열관계일 때는 의미 변화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이상으로 ‘-고도’ 접속 구성을 연결어미 ‘-고도’ 구문과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도’ 통합 구문으로 구분하여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일부 본고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용례 확보와 함께 비판적인 분석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조연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신희(2018), 「한국어 교육에서 ‘-겠-’의 양태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집문당.
- 구재희·장채린(2014), 「‘-아/어도’, ‘-더라도’, ‘-고도’, ‘-(으)ㄴ/는데도’의 의미 변별 및 교수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93~104쪽.
- 김정민(1991), 「보조사 {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록(2010),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국어교육연구』 46, 161~184쪽.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한신문화사.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서희정·홍윤기(2010),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 86, 185~208쪽.
- 송남남(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도’의 문법 설명 부분의 교재 개선 방안」, 『돈암어문학』 27, 341~364쪽.
- 송재목(2016), 「의외성(mirative)에 대하여」, 『언어』 41, 593~617쪽.
- 유현경(2003), 「국어학의 이해 - 형용사 II」, 『새국어생활』 13, 187~204쪽.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출판사.
- 이선영(2011), 「한국어의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한 논의」, 『태릉어문연구』 17, 79~93쪽.
- 이순욱(2017),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은섭(2009), 「對立 關係와 否定文의 實現에 대하여」, 『어문연구』 37, 7~29쪽.
- 이은섭·진가리(2016), 「‘-고도’에 대한 考察」, 『어문연구』 44, 45~71쪽.
- 이익섭(2004), 『국어학 개설』, 학연사.
- 이익섭·이상억·채완(2012),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지수(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115~147쪽.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87~130쪽.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323~359쪽.
- 임성규(1989), 「반복법의 체계와 특징」, 『어문연구』 19, 9~33



- 임흥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72~99쪽.
- 임흥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명사구와 조사구의 문법』, 태학사.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1』, 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장요한(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보 연결어미의 연구」, 『새국어교육』 81, 483~504쪽.
- 정진우(2009), 「형태소 분석을 통한 한국어 문장 유형 자동 분류」, 『언어와 정보』 13, 59~97쪽.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함병호(2013),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동악어문학』 60, 107~148쪽.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Dancygier(1988),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Papers and Studies in Contrastive Linguistics* 24, pp.111~121.

#### <교재류>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교보문고.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투판즈.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 연세대학교.
- 이정희 외(2015), 『경희 한국어』, 하우.

####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https://dic.daum.net/index.do?dic=kor&q=>.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Abstract>

**On the Meaning and the Syntactic Properties  
of '-고도[-kodo]' Conjunction Construction**

Song Ji-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meaning and syntactic properties of '-고도(-kodo)' conjunction construction. Currently, the unified connective ending '-고도(-kodo)' and the simply integrated '-고도(-kodo)' of the connective ending '-고(-ko)' and the delimiter '도(do)' are understood in the same way. But, these two are separately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denial of expectation' and their syntactic properties. The main features of '-고도(-kodo)' conjunction construc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nnective ending '-고도(-kodo)' has the meaning of 'denial of expectation'. '-고도(-kodo)' concessive sentence is subdivided into 3 types according to how the meaning of 'denial of expectation' is realized. It is a typical form of 'denial of expectation' that the negation of expectation appears directly in the following clause. On the other hand, it is a somewhat different type of 'denial of expectation' that the negation is expressed in an indirect form rather than expressed directly. Additional case of 'denial of expectation' is also examined which shows the meaning of opposition by using opposite words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The state in preceding clause and its expectation are examined in terms of sufficient condition and necessary condition, and it is reconfirmed that the concession negates the sufficient condition. A few cases in which the state in preceding clause and its expectation form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are also examined. '-고도(-kodo)', which represents realis, can be used in unrealistic situation under an extreme situation or when some conditions are premised.

The simply integrated construction of connective ending '-고(-ko)' and

delimiter '도(do)' is a coordinate conjunctive construction and does not have the meaning of 'denial of expectation'. In this case,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are simply connected with '-고(-ko)'. Additionally, both predicates of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show emphasized meaning due to the emphasizing and/or reinforcing function of '도(do)'. The predicates with similar or different meanings or identical meanings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are used.

There is no special restriction on the stem of the predicate in the preceding clause of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 '-고도(-kodo)'. The pre-final ending '-시(si)-' tends to be limitedly integrated with '-고도(-kodo)' depending on the subject. Pre-final ending '-었(-eot-)' cannot integrate with '-고도(-kodo)'. This is the same for pre-final ending '-겠(-get-)'.

The subjects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of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 '-고도(-kodo)' do not coincide in some cases, which seemed to violate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coincidence of the subjects. In the '-고도(-kodo)' concessive sentence, the following clause has the type of declarative or interrogative sentence, and cannot have imperative or propositive sentence type. As '-고도(-kodo)' concessive sentence constructs subordinate conjunction, it is not allowed to exchange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stem of the predicate in the preceding clause of simply integrated '-고도(-kodo)' sentence. This '-고도(-kodo)' can integrate with '-시(si)-' or '-었(-eot-)', and cannot integrate with '-겠(-get-)'. The subjects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must coincide and the following clause has the form of declarative or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allowed to exchange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in the simply integrated '-고도(-kodo)' sentence unlike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 '-고도(-kodo)'.

Key words: '-고도(-kodo)', '-고(-ko)', '도(do)', concession, enumeration, denial of expectation, sufficient condition, necessary condition, realis